

국악의 성지 국립남도국악원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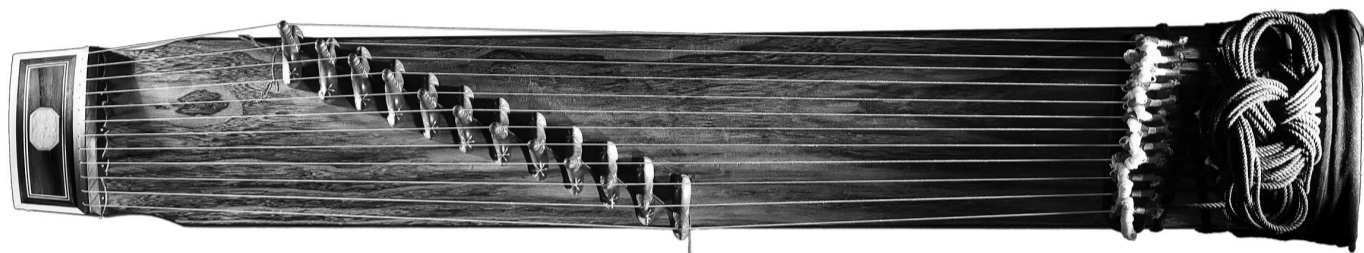
# 진도에 가면 '지화자~' 우리의 소리 '종구나~'



소치 허련과 미산 허형 부자 이야기를 다룬 '운림산방 구름으로 그린 숲' 공연.



자연과 싸우며 살아가는 민초들의 이야기를 담은 '섬'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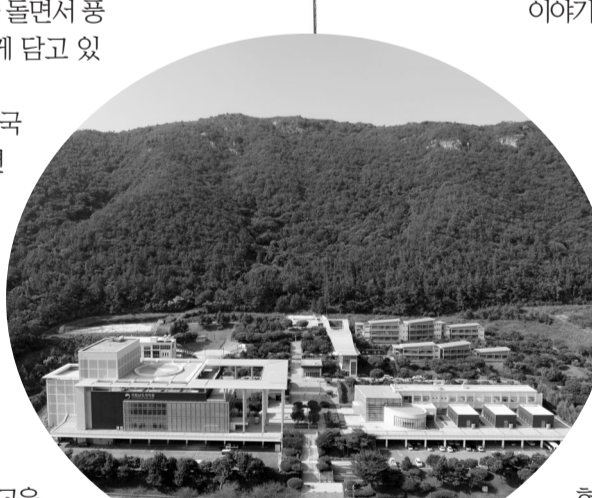
매주 토요일 상설공연...국민 삶 속에 함께하는 문화심터 '결생전'·'섬' 등 지역문화자산 소재 브랜드 작품 공연도 청 소년·해외동포 체험·교육에 남도 무형예술 연구 활발

### ◇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 공연 호응

상쇠: 여보소 풍수양반! 집터를 잘 잡아주시오!

풍수(지관): (나침반을 땅바닥에 내려놓으며) 예! 위는 청룡·황룡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저기 바닷물을 보니 천천만년 바닷물 흘러 들어서 국립남도국악원 있는 여기가 대명당입니다.

지난달 초 찾은 국립남도국악원 대극장 진악당. 상쇠 정우수 명인과 풍수(지관)가 무대에 오르며 '토요상설-국악이 좋다' 부산 고분도리결립 초청공연의 막을 올렸다. 허인대(구덕망개소리 보유자) 명인이 부는 태평소를 선두로 '부산 고분도리결립 보존회' 깃발과 꿩고리, 징, 북, 장구, 들벅구(소고), 잡색 등 30여 명의 회원들이 객석 뒤쪽에서 통로를 따라 차례로 무대로 입장했다. '고분도리'는 부산시 서구 대신동의 옛 지명. (사)부산 구덕민속예술보존회가 전승하고 있는 '부산 고분도리결립'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8호)은 정월 초사흘 날부터 정월대보름까지 행해지던 결립 풍물굿이다. 지난 2011년 3월 풍물굿은 집터잡기를 시작으로 당산굿→우물굿→버누놀이→대문굿→성주굿→조왕굿→장독굿→용왕굿→대동놀이 순으로 전개됐다. 오래전 농경사회에서 새해를 맞아 집집마다 돌면서 풍년과 풍어, 무사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던 모습을 오롯하게 담고 있다.



국악체험을 하는 외국인들(위)과 국립남도국악원 전경.

국립국악원 산하에 국립민속국악원(남원·1992년 개원)과 국립남도국악원(진도·2004년 개원), 국립부산국악원(2008년 개원) 등 3개의 분원이 있다. '보배섬(珍島)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에 등지를 둔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명현)은 남도지역 전반의 전통예술을 공연·교육·연구사업을 통해 보존·전승하고 있는 국가 예술기관이다. 지역고유의 전통예술인 '진도씻김굿'과 '다시래기', '들노래', '강강술래', '만가(萬歌)', '뒹배놀이', '북놀이', '농악', '아리랑' 등의 맥을 이으면서 '운림산방, 구름으로 그린 숲'과 '섬'과 같은 브랜드 작품을 창작해 무대에 올리고 있다.

또한 청소년·교사, 일반인, 해외동포·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 그리고 지역전통예술과 예인(藝人)을 조사 연구한 결과물인 '국립남도국악원 총서' 출간 등 연구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남도 문화예술의 산실(産室)', 국민의 삶속에 함께 하는 '문화심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 지역문화자산 소재로 '브랜드 공연' 선보여

국립남도국악원은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상설공연'과 '정기공연', '브랜드 공연'을 활발하게 선보이고 있다. 우선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상설공연 무대를 올린다.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는 진도 등 남도지역은 물론 타 지역에서 전승되는 무형유산을 만끽할 수 있는 전통예술의 향연(饗宴)이다.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기악단·성악단·무용단)을 비롯해 각 지역 대표적인 예인·전승단체들이 무대에 올라 다채롭고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인다. 이달 토요상설 공연 일정은 국립남도국악원 기악단 정기공연(21일)과 국립남도국악원 기획공연 '판소리, 다섯 바탕의 맛'(28일)이 예정돼 있다.

또한 국립남도국악원은 개원 후 19년 동안 지역 문화자산을 소재로 총 10종의 브랜드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백구야 경중 뛰자마라'(2008년)와 '국극·씻김'(2010년), '술래야 술래야'(2012년), '절대 박절대'(2014년), '운림산방 구름으로 그린 숲'(2016년), '뽕뽕뽕 방귀쟁이 뽕함마니'(2017년), '바람소리도 남의 소리'(2019년), '결생전(乞生傳·2020-2021년)', '섬'(2022년) 등이다. 소치 허련과 미산 허형 부자(운림산방 구름으로 그린 숲)와 진도 신비의 바닷길에 얽힌 '뽕함마니 이야기'(뽕뽕 방귀쟁이 뽕함마니), 남도잡가 '흥타령'(바람소리도 남의 소리) 같은 남도 전승예술과 예인 등 문화자산을 작품소재로 삼은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서사극 '섬'은 지난해 6월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초연한 후 서울 국립국악원 무대에 올려지며 호평을 받았다.

'섬'이라는 공간에서 거친 파도와 바람, 자연과 싸우며 살아가는 민초들의 이야기 속에 진도와 남도지역의 토속민요와 음악적 소재를 녹여냈다.

### ◇ 연간 200여 차례 교육·체험 프로그램 진행

국립남도국악원은 청소년 국악체험과 교원 직무연수, 해외동포 및 국악단체 초청연수 등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찾아가는 교실음악회'를 36회,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뎃더콩 병영연수'를 6회를 실시했다. '해외동포 및 국악단체 초청연수'를 5회(135명) 마쳤고, 올해에는 '다문화·한부모 전통문화체험'을 신설해 10회(400명)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남도국악원은 '남도 무형예술'을 연구·조사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다. 개원 이후 '국립남도국악원 총서' 24종과 '남도무형문화 예술시리즈' 13집을 펴냈다. 굿의 전승과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는 '국악·국악축제' 공연과 '국악·국악축제 학술대회'도 열고 있다. 이 밖에도 유튜브 채널 '국립남도국악원'과 SNS를 통해 국립남도국악원의 활동상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글=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 "지역문화예술 보존·전승하고 다양한 공연으로 국민과 향유"

### 명현 국립남도국악원 원장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문화다양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지역문화예술의 보존·전승은 미래지향적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남도지역을 포함한 한국의 전통예술 전반을 지역에서 국민과 향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명현 원장은 "국립남도국악원은 진도를 비롯한 남도 지역 전반의 전통예술을 공연, 교육, 연구사업을 통해 보존·전승하고 있다"면서 "전승되는 예술은 무대에서 공연되고, 교육사업을 통해 보급되며, 연구사업을 통해 기록·보존되고 체계화된다"고 밝혔다.

명 원장은 공연사업에 대해 "브랜드 공연을 꾸준히 제작하고, 3-12월 '토요상설'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역에서 전승되는 음악과 인물, 설화, 문화자원을 토대로 제작하는 '브랜드 공연'은 남도예술자원을 현대적으로 무대화하며, 기관의 대표작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남도국악원이 지난 2014년 7월 개원한 후 제작한 브랜드 작품은 총 10종. 이 가운데 지난해 제작한 '섬'은 온전히 남도사람과 삶, 음악으로 만든 작품이다. 특히 이야기 전개에 필요한 음악은 신안군 '미역따는 소리'와 진도 씻김굿의 '삼장개비 장단', 고(故) 박병천 명인을 통해 전승된 '푸너리' 등 인위적인 작곡보다 전승이 끊긴 민요와 굿 음악에서 찾았다고 했다.

또한 국립남도국악원은 초보자부터 전문인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기관을 자임한다. 지난 2016년 연수 전문기관으로 기관을 특성화하고 연간 200여 차례의 교육·체험·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는 청소년, 일반인, 교사, 해외동포, 국악단체, 외국인(유학생) 등 폭 넓다. 명 원장은 일반인들이 국악과 친숙해지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국립남도국악원의 SNS를 비롯해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국악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듣기 편한 곡부터 우선 접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공연장을 찾아서 보고 듣는 것은 더 좋습니다. 문화기관이나 단체, 복지센터에 찾아 국악을 직접 배우시면 금상첨화(錦上添花)겠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을 찾아주시면 더 큰 기쁨이겠습니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30일
- 2관 천박사 티마 연구소: 설계의 비밀
- 3관 화란
- 4관 1947 보스톤, 더 년 2, 극장판 엉덩이 탐정: 미스터리 가면~최강의 대결
- 5관 더 년 2
- 6관 30일
- 9관 화란, 크리에이터, 만강홍: 사라진 밀서
- 7관 씨네가볼 기억해, 우리가 사랑한 시간, 80일간의 세계일주
- 8관 씨네가볼 1947 보스톤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 GAC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일시: 2023-10-17(화) ~ 22(일)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소극장, 잔디광장  
문의: 062-613-8233

소리극 <클비츠와의 대화>  
일시: 2023-10-17(화) ~ 18(수) 19:3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062-613-8235